"새정치, 계파주의 폐해 극복

혁신실천위 토론회 책임론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가 3일 '계파주의 극복'을 주제로 개최

한 토론회에서 '친노(친노무현)계의 책

이날 토론회에서 김태일(정치외교) 영

남대 교수는 "가장 힘 있고 규모가 큰 친

노 세력이 계파 패권주의를 넘어서는 모

습으로 '솔선'할 때 새정치연합의 발목

을 잡는 계파정치 폐해가 극복될 수 있

김 교수는 이어 "친노 진영이 패권적

인 지위를 가지고 패권성을 유지했기 때

문에 당내 단합이 깨졌다"고 지적한 뒤,

계파정치 청산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비대위원들의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 협

비노와 486 진영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비노는 어떠한 비

전과 논리도 없이 친노 패권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자원배분만

요구한다"고 지적했으며 486에 대해서

는 "계파 해체라는 때늦은 성찰 이후 계

파주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보이

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론'이 제기됐다.

다"고 강조했다.

약'을 주문했다.

힘있는 친노세력이 솔선해야"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대한민국에서

계파는 형성 통로는 당권경쟁과 대권경

쟁, 공천경쟁, 이념노선"이라며 "여기

에 칼을 들이대지 않으면 계파주의를 극

복하지 못한다. 이 4가지 사안에 특단의

이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적대시 하는 진영에

서 계파 문제를 확대 재생산시켜 정작

중요한 당 전략 문제 등이 논의되지 못

하고 있다"며 "이 논의를 하루 빨리 종

한편, 이날 토론회에 다소 늦게 참석

한 문재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대

계파인 친노 진영에서 전대 불출마 협약

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룰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공천 제도를

지도부가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투

명한 룰에 따라서 해야 한다"며 "이것이

완전히 제도화되면 계파를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새정치 전당대회 내년 2월 8일 개최키로

#### ■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및 지역의원장 서축 의정(작정안)

시탁취전경	시작귀원정 선물 결정(삼성건)	
시기	내용	
10. 31	지역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1. 7	전대준비위 구성	
	지역위원장 단수후보 인준(1차)	
11. 17~11월말	지역위원장 경선	
11. 22~12. 7	지역대의원대회	
12. 29	당대표·최고위원 선출방법 확정	
'15. 1. 7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등록	
'15. 1. 9	시도당위원장 선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운동	
'15. 2. 2일까지	전국대의원 명부 확정	
'15. 2. 8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를 내년 2월 8일 개최하고 지도부 경선 룰은 다음 달 29 일까지 결정한다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역위원장 선정이 일정 부분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부터 지도부 경선 룰을 둘러싸고 잠재적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 쟁전이 본격화하며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오는 7일까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1일 선출직 대의원규모를 확정한다.

또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지역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다음 달 29 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법을 확정할

이어 내년 1월 5일에는 강령정책 및 당현 개정안을 발의하고 같은 달 7일에는 당 대표 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등록을 받는다. 1월 9일에는 각 시·도당위원장 선출에 나서는데 이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개시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일단 내년 2월 8일 로 전당대회 일자가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 으로 안다"며 "하지만, 각종 변수가 있는 만

# 잠정 결정…지도부 경선 룰 내달 29일까지

### 15일까지 지역위원장 후보자 심사 마무리

큼 최종 전당대회 시기는 유동적인 상황"이 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강특위(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일단 이달 15일까지 지역위원장 후보자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오는 7일 1차로 단수 지역위원장을 인준할 계획이다.

또한, 복수의 후보자가 있는 지역위원회의 경우, 당내 실사와 면접, 내부 논의 등을통해 경선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지역위원장 경선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조강특위에서는 광주 북 을 등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복수의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 아직까지 경선 실시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는 경선 실시보다는 현역 국회 의원의 지역위원장 유지 의견이 강한 것으 로 전해져 조강특위가 스스로의 기득권을 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에서 웃어고 있다는 마단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후보자들이 대거 몰린 서구 을과 순천·곡성의 지역위원장 선정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을은 조영택 전 의원, 김정현 수석 부대변인, 정상용 전 의원, 김하중 중앙당 법률위원장 등 4명으로 후보를 압축됐으 나 순천·곡성은 아직까지 후보 압축도 이 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지역 일부 국회의 원들은 경선이 여러 가지 분란만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조강특위 위원들에게 서 구 을과 순천·곡성 지역위원장 선출을 연 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 조강특위 위원은 "서구 을과 순천· 곡성 지역위원장 선정을 놓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르면 4~5일, 늦어도 이번 주 내에 경선 실시 여 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권노갑-문재인 만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이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권노갑 상임고문의 '순명' 출판기념회에서 권 고문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희상 "연내 개헌특위 구성해야"

개헌 논의 그치지 않는 정치권

문의상 언내 개언득위 구성해야 심상정 "독일식 비례대표 도입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 원장은 3일 "금년 내에 개헌특위를 구 성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 김무성 대표가 화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표가 화답하실 마단다 고 될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대타협 기구의 출 범과 국회 정개특위 가동, 4대강·자원 외교·방산 비리 국정조사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 김 대표의 수용을 거듭 촉구

이어 문 위원장은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과 관련, "삐라도 관리 못하 는 우리 정부, 삐라 때문에 대화를 못하 겠다는 북한 당국 모두 패자"라며 "이 런 결과를 예상하고도 수수방관해온 정부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이라 도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성의있게 나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북측에 대해서도 "삐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대화에 적극 응해주길 강력 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 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 법재판소가 선거구 개편을 명한 지금이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광역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의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거대 양당이 잘못된 정치를 해도 늘 2등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이 탓에 양당은 (자신들끼리만 경쟁하며) 대안을 내기보다는 상대를 흠집 내고 악마로 만드는데 주력한다"며 "정치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해 정의당의 제안과 도농복합선거구·중대선거구 등 다양한 방안을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권노갑 "반기문 측근들, 野 후보로 대선출마 의사 타진"

#### 출판기념회서 밝혀…정치권 파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망론'이 여

의도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다.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가신그 룹인 동교동계 좌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권 노갑 상임고문은 3일 최근 일부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한 반기문 유 엔 사무총장의 측근들이 반 총장의 야권 대선후보 출마 문제를 타진했다고 전했다.

권 고문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 린 회고록 '순명' 출판기념회에서 기자들 과 만나 "반 총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 는 분들이 와서 (반 총장이) 새정치연합 쪽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쓰겠다(좋

"반 총장이 훌륭한 인물이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 당 (새정치연합)에서 영입해줬으면 좋겠다"는 측근의 제안에 "반 총장을 존경한다, 그만한 훌륭한 분이 없다"고 화답했다는 것이다. 권 고문은 그 측근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름을 말할 수 없다"고 함구하면서 "반 총장과 교감이 있는 발언이었느냐"는 질문에도 "그건 모르겠다"면서도 "그 분이 측근이란 건 확실하고, 아주 상

당히 가까운 사이이며, 진지하게 제안해 왔다"고 말했다.

이 측근이 약 6개월전에 권 고문에게 이 같은 의사를 타진한데 이어 최근 또다른 반 총장측 인사 두 명이 비슷한 취지의 얘 기를 했다고 권 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여권 내에서 '반기문 대망론' 이 나오는데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며 "그분들(측근 인사들)이 왔을 때 이미 '여 당은 안 가겠다'고 나한테 분명히 이야기 했다"고 못박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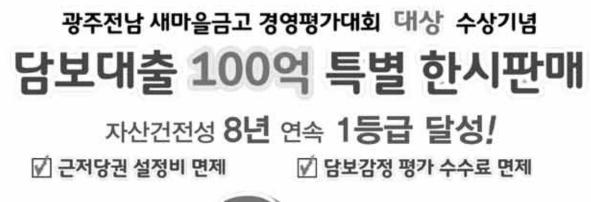
권 고문은 반 총장에 대해 "직업 외교관 으로서 커리어(경력)가 충분히 쌓여있고, 사람이 온건하고, 지금 세계적 지도자로 우뚝 서 있어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사 람"이라고 평가한 뒤 "우리가 영입을 해 경선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 고문의 폭탄성 발언에 여야 정치권은 술렁이는 가운데 사실관계에 촉각을 세웠다. 야권내 유력주자로 거론되는 새 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이날 권 고문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직후 들른 당 혁신 관련 토론회에서 기자들이 계파문제와 관련된 질문 끝에 권 고문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만 하시죠"라며 답변을 피해 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학원개체 다음자체 검색장: 광주새본행정고시학원





**基**对 色 **5**% >>

햇살론 대출(화원)

<sup>근로자,직장인</sup>**신용대출** 아파트 전세 보증금 대출 (

